

都市主婦의 家庭經營觀과 家庭儀禮와의 相關研究*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rban Homemaker's View of Homemanagement and the Domestic Courtesy and Ritual.

誠信女子大學校 家政大學 家庭管理學科
教授 李 吉 杓

Dept. of Home Management, Sungshin Women's University
Prof.; Lee Kil Pyo

<目 次>

- | | |
|-----------------|-------------|
| I. 序 論 | IV. 結果 및 解釋 |
| II. 家庭經營觀과 家庭儀禮 | V. 結論 및 提言 |
| III. 調查研究方法 | 參考文獻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rban homemaker's view of homemanagement and the domestic courtesy and ritual (wedding ceremony, ancestral service, funeral rites).

The data for this study was obtained from the 661 homemakers who live in Seoul, Busan, Inchon etc. The data were analyzed by the method described below with SPSS Computer programs.

Such methods as frequency, percentile, analysis of variance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Factor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were used.

The major results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1) As the result of factor analysis about view of homemanagement, 10 factors (which Eigen Value was above 1.0) out of 28 questions were extracted.
- 2) In general, it can be said that the urban Homemaker's View of homemanagement varies by age, level of education, religion.
- 3) The domestic courtesy and ritual (wedding ceremony, ancestral servic, funeral rites) varies by age, level of education, religion.

*본 연구는 1988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학술연구 조성비에 의해 이루어졌음.

4) There is a positive relation in analyzing the correlation between the urban homemaker's view of homemanagement and domestic courtesy and ritual (wedding ceremony, ancestral service, funeral rites)($p < .001$).

I. 序 論

1. 問題의 提起

오늘날 現代의 産業化社會에서는 서구적 男女平等 思想과 女性들에 대한 教育水準의 向上 그리고 社會 參與의 확대등으로 社會變化는 물론, 우리의 日常 家庭生活에도 커다란 變化를 招來하게 되었다. 傳統社會의 家父長的 家族制度나 男女의 内外法 또는 男尊 女卑와 男性優位の 現象등은 점차 褪色되어가고 있으며, 社會적으로도 女性들의 遊休能力 및 潛在能力의 活用과 開發이 要請되어 女性들은 家庭內에 安住하는 것만을 憂越의 價値로 삼았던 從來의 觀點과는 달리, 社會의 寄與에 한 몫을 하여야 하는 社會와 家庭의 한 主體로서의 女性의 價値로 浮上하기에 되었다.

그러나 光復以後 政治·社會·文化·技術 各分野의 급속한 發展段階를 거둬온 우리나라는 이러한 變化에 適應하고 이를 受容할 수 있는 精神的인 餘裕나 뒷받침이 微弱하여, 수많은 混亂과 葛藤의 迂餘曲折이 아직까지도 거둬되고 있음은 否認할 수 없는 現實이다.

이와같은 現象을 급속한 近代化過程에서 高度成長의 經濟發展과 함께 物質文明과 科學技術의 發達에 따른 能率優先과 便宜爲主의 簡素化 그리고 効率化를 選好하고 追求하게 되므로써 過去 家庭生活만을 中心으로 營爲되어왔던 모든 삶의 活動들이 점차 社會化되는 現象이 顯著하게 되어, 家庭의 機能 또한 급격히 喪失되므로써, 오랜세월동안 維持되고 發展하여온 「家庭」을 實質적으로 消滅시키게 될지도 모른다는 憂慮마저 낳고 있으며 이를 補完하기 爲해서는 確固하고도 바람직한 家庭經營觀의 確立이 焦眉의 問題로 대두하게 되었다.

主婦는 家庭의 經營과 管理의 主體이므로 그가 어떠한 價値觀과 家庭經營觀을 가지고 家庭을 運營하

는가 하는것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더욱이 오늘날과 같이 急變하는 社會 狀況속에서 家庭經營觀을 집안의 단순한 살림살이로만 看做되어온 家庭活動領域이외에 다른 넓고도 많은 分野로까지 擴大되어 家庭運營 全體에 대한 包括的인 概念으로 把握되어야 하므로, 이는 傳統社會에서 보다는 더욱 重要視되어야 한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家庭儀禮를 行事하는 節次 및 內容에 있어서 오늘날의 價値觀과 生活樣式과는 큰 乖離가 있음을 감안할때, 家庭儀禮는 個人的 삶에 대한 哲學에 따라 決定될 뿐만 아니라, 家庭運營方法에도 그 節次와 內容이 달라진다.

家庭經營觀에 對한 研究는 家庭管理行動, 能力 혹은 家庭管理方法, 價値觀, 生活樣式등의 研究를 通해서 個別的으로 또는 部分的인 研究로 각기 獨自의 體系化되어 왔으나, 家庭經營觀을 綜合的인 概念과 아울러 展開시킨 調査는 극히 드물고 이번에 처음 試圖되고 있는 실정이며, 家庭儀禮도 婚禮과 祭禮, 그리고 喪禮 등도 각각 文獻研究나 調査研究도 個別的으로만 進行되어왔다.

따라서 本 研究에서는 이와같은 先行研究를 根幹으로 하여 傳統社會에서의 家庭經營觀이 어떻게 오늘날 受容되고 變容되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主婦의 家庭經營觀이 傳統的인 家庭儀禮 節次 및 內容과 어떠한 關聯性을 갖는가를 把握해 봄으로써 褪色되어가는 우리의 傳統生活文化를 올바르게 定立시킬 수 있도록 이에 관련된 基礎的인 資料를 마련하여, 生活文化의 教育現場에 適用시킬 수 있는 根據를 提示하고자 한다.

2. 研究目的

本 研究는 主婦에게 家庭生活運營의 바람직한 方向과 指針을 제공하여 주므로써 實際에 있어서 家庭生活을 돕는 家庭經營觀을 우리 傳統社會의 文獻을 통해 考察하여, 이를 現代의 主婦들이 어떻게 受容하

〈표 I-1〉 朝鮮朝 女性 規範類의 概括的 分析

書名	著者	性別	年代	對象	內容特徵
1. 內訓	昭惠王后	女	1475年 (成宗 6年)	宮中·民庶의 婦女	아낙네의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가르치기 위해서
2. 규동요람	李滉 (傳)	男	1501~1570年 (中宗一明宗)	士大夫家 婦女	일상생활의 교훈 및 지도서
3. 우암선생 계녀서	宋時烈	男	1607~1689年 (仁祖一孝宗)	출가하는 딸에게 (士大夫家 婦女)	부모로서 딸의 행복한 혼인을 바라는 훌륭한 규범적인 지도서
4. 士小節	李德懋 (雅亭)	男	1741~1793年 (英祖一正祖)	士大夫家 婦女	부녀자 교육을 통해 사회발전에 도움을 주기위해
5. 閨閣叢書	憑虛閣 李氏	女	1809年 (純祖 9年)	모든 계층의 婦女	일반 부녀의 계몽을 위한 기정 백과 전서

고 있는지 알아보고, 家庭儀禮(婚禮·祭禮·喪禮)와의 관계를 把握하여, 우리의 傳統生活文化의 이해를 돕고, 이를 올바르게 定立시켜 나가기 위한 教育現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根據를 마련함에 目的을 두고 있다. 具體적으로

① 朝鮮朝부터 오늘날까지의 家庭經營觀을 關聯文獻을 통해 考察 整理한다.

② 傳統社會에서의 家庭儀禮는 婚禮·祭禮·喪禮로 국한하여 그 內容을 文獻을 통해 考察한다.

③ 設問紙法을 利用하여 傳統社會에서의 家庭經營觀을 오늘날 都市主婦가 어떻게 受容하고 있으며, 變容되고 있는가를 把握한다.

④ 都市主婦의 家庭儀禮의 節次基準과 行禮를 살펴본다.

⑤ 家庭經營觀과 傳統 家庭儀禮(婚禮·祭禮·喪禮)와의 關係를 把握한다.

3. 研究範圍

① 朝鮮朝의 家庭經營觀은 朝鮮朝 規範類에 나타난 女性教育內容을 中心으로 把握하였다(표 I-1)

② 家庭儀禮는 朝鮮朝를 基準으로하여 傳統婚禮·祭禮·喪禮에 대한 關連문헌을 통하여 그 內容과 節次를 考察하였다.

II. 家庭經營觀과 家庭儀禮

1. 家庭經營觀의 概念 및 內容

人間發達의 未熟은 肉體의 結晶에서 비롯되는 身體的 生存의 欲求과 人間답기 위한 精神的 生存의 欲求充足을 必要로 하며, 이러한 欲求充足을 위한 家庭內에서 이루어지는 行爲 全體를 家庭經營이라 할 수 있다. 家庭經營은 家庭生活 全體의 方向을 유도하고 變경할 수도 있는 概念이므로 家庭生活 運營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이 된다. 따라서 그 家庭의 主體者가 어떠한 哲學과 觀念을 가지고 있는가는 매우 重要하다.

즉, 家庭經營觀은 家庭의 運營 指針과 方向을 決定하며, 그 基準이 되는 包括的인 觀念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이와같은 家庭經營은 그 家庭이 어느 社會의 文化圈에 속하고 있느냐에 따라 形態가 달리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 範圍가 넓어지기도 좁아지기도 하므로 그 家庭이 속한 社會文化的인 배경속에서 비로소 理解되고 分析될 수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本 研究에서는 우리의 傳統的 家庭經營觀을 15C로부터 19C까지 朝鮮朝 社會를 文獻을 中心으로 考察하고 이를 根據로 現代的 視角에서의 家庭經營觀을 把握해 보도록 하였다.

朝鮮朝는 朱子學 傳來後 定着된 儒敎文化가 社會

全般을 지배하였으므로 家庭經營觀에서도 儒敎的인 價値秩序가 그 中心이 되어 나타나고 있다.

朝鮮朝 初期에는 特히 強力한 家父長制下에서 齊家は 男女의 重要業務였으며 女子에게는 賢母良妻의 教育의 人間像을 그리면서 家事勞動에 從事하고 貞淑, 貞烈, 勤儉節約, 孝親하는 며느리, 敬順忍從의 아내, 그리고 女子教育에 대한 몸가짐, 態度等 儒敎精神에 立脚한 道德, 規範을 習得시키는 德育을 強調(崔明仁, 1979, p. 10)하였으므로, 이러한 內容이 당시 家庭經營에 중요한 價値基準이 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猝

壬亂(1592年)과 胡亂(1636年)以後의 家庭經營觀은 李晬光의 芝峯類說이나 宋時烈的 戒女書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당시는 勤儉·節約·精誠의 精神을 중시하며, 家庭의 유지·발전을 위하여 貢獻하고 勤儉節約하는 家庭經營觀이 要求되었다.

朝鮮朝 後期(19代 肅宗(1674年~1720年)中盤부터 ~高宗(1863年~1907年)까지) 家庭經營觀은 李德懋의 士小節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또한 인현왕후전이나 閑中錄등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後期の 家庭經營上 家門重視, 家道守護, 一家和睦 等에 대한 觀念이 중시되었으며, 勤儉 節約만을 強調해온 家計運營 뿐만 아니라, 돈놀이에 대한 언급이나 女性도 家計에 보탬이 될 수 있는 方途를 가져야 한다(士, 小節, 事物)는 內容等으로 볼때, 實學思想의 影響으로 實踐的인 側面도 強調한 家庭經營觀을 이루고 있었다고 본다.

2. 家庭儀禮의 內容 및 簡次

1) 婚禮

朝鮮朝는 建國初부터 文公 家禮의 勵行에 注力하여 儀禮 問題 解決을 試圖하고, 抑佛崇儒政策을 씀으로써 이에 基準을 둔 家禮는 더욱 普遍化 되었다(이길표, 1982, p. 13, 박혜인, 1988, p. 39).

婚儀의 참뜻은 天地의 和合을 본 받아 二姓이 好合하고 百年偕老하며 위로는 宗廟를 섬기고 아래로는 後孫을 이어 孝를 實踐하고 化育에 參與하는데 있었다. 家禮의 議婚에는 반드시 仲媒를 통한 昏禮 議昏이었으며, 擇婦 選壻의 基準은 德本則末原則을 取하

여 양가의 門閥이 비슷하고 德行이 비슷한 家門과 家門의 結合이었다. 그리고 備齊叢話에 新郎의 말앞에 財幽을 지워가지고 가는것을 法命으로 禁止한 後에는 다 미리 미리 보이게 되었다라고 한 바를 보면 함은 納幣前에 男家에서 女家로 物品을 婚前에 보내는 일이 옛적에도 있었던 모양이다.

2) 祭禮

祭禮는 祭祀를 지내는 禮節이며, 그 儀禮의 表現을 통하여 實現되는데 特徵이 있다. 儒敎의 祭禮의 本質的 態度는 人間存在의 始源이며 根本으로서 하늘 또는 祖上의 神靈에 報本反始하므로써 自己存在의 意味를 發見하고, 敬의 內面的 態度와 孝를 실현하는 方法으로서 人間의 社會的 秩序와 調和를 確保하는 機能으로 評價를 받게 되는 것이다.

祭祀에 있어서는 誠·敬을 強調하며 誠敬이 없는 祭祀는 아무리 잘 차려다 하더라도 所用이 없는 것이라 하여 不誠이면 無物이다(「中庸」二十二章)이라고 까지 하였으며, 이외에 閨中要覽과 戒女書, 士小節에서도 奉祭祀에 대한 가르침을 다루고 있다.

3) 喪禮

朝鮮朝의 喪祭에 관한 禮法은 儒學者들이 크게 특세하게된 中宗以後부터는 매우 철저히 施行되었다(李鍾恒, 1963, p. 157). 三年喪制는 주로 士大夫를 대상으로 하여 강력히 요구되었고, 王服制度도 그와 동시에 잘 수행되었다. 그리고 庶民으로서 三年喪을 행하기를 원하는 者에게는 三年喪을 聽許해 주기도 하였는데, 점차 이것이 成風이 되어 三年喪制는 一般化되어 대체로 충실히 시행되었다.

그리고 수의는 閨달에 만들어 두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혹 回甲 後 生辰날 만드는 데도 있었다. 또한 女喪일때의 收屍는 女子가 하며, 屍身을 목욕시킬때도 男喪은 男子가 女喪는 女子가 시켰다. 吊喪은 원칙적으로 成服 後에 하도록 되어 있으며, 成服 後라도 亡人과 生時에 면대가 없거나 女子인 경우에는 殯所에 절하지 않고 喪主에게만 인사하였다(李家源, 1980, pp. 77-78).

그리고 三虞를 지낸후 석달만에 剛日(甲, 丙, 戊, 庚, 壬日)을 가려서 卒哭을 지내며, 임종한지 만 1년이 되는날 小祥을, 3년만에는 大祥을 지낸다.

III. 調查研究方法

1. 尺度構成

1) 調查對象者의 一般의 事項은 先行研究 考察에서 지적된 年齡, 學歷, 宗教 이외에 월평균 수입, 수입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子女數, 職業有無, 며느리 순위, 주택형태, 출생후 주성장지, 부모님과의 동거 여부등이다.

2) 都市主婦의 家庭經營觀 測定을 위하여 28개 문항을 작성하였다. 尺度는 전술한 朝鮮朝 規範類를 중심으로 하여, 孝親, 子女教育, 夫婦關係, 兄弟關係, 家事, 奉祭祀, 손님접대, 修身等에 해당되는 내용의 중요한 概念을 忠·義·信·節烈·청렴결백·孝·恭敬·親和·禮·誠·貞淑·賢淑·協同·信·勤勉·勤儉·家道守護등의 價値로 파악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이는 우리의 傳統的 價値를 基準으로 하여 오늘날의 家庭經營觀을 측정하고자 한 것이다. 그 척도는 1988년 6월 20일부터 6월 28일까지 1차 調查結果, 61%의 설명이 가능했으므로(이길표, 주영애, 1989, p. 269) 그대로 사용되 각 문항의 要因積在值가 낮게 나온 몇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재작성하였다. 問項은 3點 Likert Scale로 등급을 주어「그렇다」에 3점, 「그저그렇다」에 2점, 「그렇지않다」에 1점으로 하였고, 총 점수 범위는 28점~84점이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傳統志向의인 家庭經營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았으며, 要因分析 結果 10개의 要因으로 구분되어진 각 要因은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上·下 집단으로 分類하였다.

3) 家庭儀禮의 節次 基準은 날짜, 시간, 장소, 음식대접, 행사진행, 예단이나 답례품, 제수전을 보낼 때, 보내는 물품이나 금품의 양, 옷차림에 관한 내용을 파악하는 총 24개 문항이었다.

4) 家庭儀禮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길표(1982) 이영미(1989), 박순천(1986), 박수정(1989)의 研究와 古文獻을 참고로 婚禮·祭祀·喪禮行禮 測定 問項을 각각 14개씩 구성, 총 42개로 하였다. 그 정도는 家庭經營觀 測定尺度和 같이 3點 Likert Scale로 총 점수 범위가 14-42점이었으며, 中位點을 中心으로 평

균점수가 높을수록 傳統志向의인 儀式을 行한다고 하였다.

2. 研究對象 및 標集方法

設問紙는 서울(300부), 부산(100부), 인천(100부), 제주(80부), 충주(80부), 마산(80부), 속초(80부)의 主婦를 對象으로 1988년 11월 18일부터 12월까지 총 820부를 배부하였다. 그리고 71부(89.3%)를 회수하여, 부실기재되거나 研究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제외한 661부를 실제 分析에 사용하였다.

3. 資料分析 方法

수집된 자료는 spss program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調查對象者의 一般의 特性을 把握하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을 내었고, 家庭經營觀을 要因分析 (Factor analysis)을 하여 그 結果 Eigen Value가 1.0이상인 10개 要因만을 추출하였다.

婚·祭·喪禮 節次 基準은 年齡, 學歷, 宗教別로 X^2 -test로, 行禮는 F-test로 把握하였으며, 家庭經營觀 10個要因과 婚·祭·喪禮와의 關係를 보기 위하여 t-test와 상관관계분석, 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였다.

IV. 結果 및 解釋

1. 調查對象者의 一般의 事項

全體 調查對象者 主婦는 주로 40대(44.0%)이며, 高卒(41.5%)이고, 41만원~70만원(48.4%)의 월평균 수입으로 지낼만하다(59.2%)고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또한 職業은 없으며(64.9%), 2~3명의 女子가 있고(62.6%), 宗부와 외며느리를 포함한 맏며느리인 경우가 많았으며(53.9%) 종교는 佛敎를 믿고(37.2%), 주로 단독주택에서 살며(58.9%), 父母님과는 同居해본 經驗이 있는(60.2%) 主婦들이었다.

2. 都市主婦의 家庭經營觀

都市主婦의 家庭經營觀은 10個의 要因으로 抽出되어, 各各의 構成問項 特性에 따라 다음과 같이 命名하여 家庭經營觀을 說明하였다<表 IV-1>

〈표 IV-1〉 각 요인별 문항과 요인적재치

요인	문항번호	문항	Eigen-Value	요인적재치
1	15	모든일에는 처나 자식보다 부모가 우선이다.	3.05528	0.44287
	16	부모는 반드시 자식이 모셔야 한다.		0.45582
	17	부모의 뜻을 거역하지 않는다.		0.50144
	18	남편은 아내에게 반말을 쓰지 않는다.		0.38174
	21	부부간에는 각자 맡은 책임을 미루지 않는다.		0.24903
	26	형제간의 길흉사는 곧 나의 일이다.		0.31024
	27	몇달 차이라도 동생은 형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		0.39380
2	12	돈은 조금이라도 저축하고 난 다음에 쓴다.	1.85595	0.30622
	19	어떤 경우라도 남편은 부업일은 하지 않는다.		-0.34371
	23	가정의 일에 자식의 의견을 반영한다.		0.52645
	28	웃어른을 정초에 한번이라도 찾아뵈는다.		0.21163
3	4	돌아가신 분을 위해 제사나 추도식을 지낸다.	1.46460	0.50122
	7	제사나 추도식이 필요한 음식은 집에서 만든다.		0.67293
	10	순님접대 음식은 평소보다 잘 차린다.		0.16525
4	13	분에 넘치게 꾸어 쓰거나 외상은 하지 않는다.	1.32287	0.81330
5	2	비싼 물건은 아닐지라도 집안에 내려오는 물건은 잘 보관한다.	1.26387	0.58094
	3	집안내에서 내려오는 가르침은 반드시 지킨다		0.42200
6	6	집에서는 여름에도 속옷 바람으로 있지 않는다.	1.26387	0.21309
	8	옷 수선은 집에서 한다.		0.43032
	9	손님 대접은 반드시 집에서 한다.		0.51378
7	25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는 희생할 수도 있다.	1.16306	0.55449
8	1	집안의 흥을 밖에 드러내지 않는다.	1.11250	0.28519
	20	부부간에도 하고싶은 말이라고 다 하지 않는다.		0.50084
	24	자녀가 요구하는 것이라고해서 다 들어주지는 않는다.		0.26539
9	5	대를 잇기 위해 아들은 꼭 낳아야 한다.	1.07983	0.45206
	11	갑자기 손님이 오더라도 약속을 취소하고 만난다.		0.35355
10	14	혼수는 미리미리 장만한다.	1.04291	0.35865
	22	자녀교육을 위해서는 교육환경이 좋은곳으로 이사할 각오가 되어있다.		0.48111

1) 孝親崇拜의 和睦 및 孝悌反愛爲主의 傳統的 序次意識

都市主婦의 家庭經營觀에는 父母에 대한 孝와 和睦을 爲한 夫婦間의 禮와 兄弟間의 우애와 尊重 等の 意志가 가장 크게 반영되어 있다. 李吉杓·朱榮愛(1989)의 研究와 서병숙·고경미(1988)의 研究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孝는 예로부터 百行의 根源이며

天地的 모든 人間生活의 指導原理이며 根本이 되는 것이므로 朝鮮朝의 대부분 規範類에서도 이와같은 父母에 대한 孝行을 強調하여 왔고 단지 觀念的 思考倫理가 아니라 行動으로까지 옮겨져야하는 實踐倫理로서 다루어진 것으로 오늘날까지 意識·無意識의 로 訓育되어온 結果가 나타난 바가 여겨지며, 夫婦間이나 兄弟間의 和睦도 孝의 일부분으로 認識되어 왔

던 터라 이에 기인하여 포함되었다고 思料된다.

2) 勤儉節約 및 和睦意識

이 要因에는 家事에 대한 勤儉, 金錢使用에 있어서 節約과 和睦에 대한 強調가 포함되어 있다.

예로부터 家事는 女性的의 일로 간주되어 왔으나 이러한 意識은 男女의 平等 및 役割共有 등을 強調하고 있는 오늘날에도 남아있어 主婦들의 家庭經營觀에 한 要因이 되고 있다고 하겠다.

저축을 강조하는 내용도 이미 士小節의 婦儀 事物이나 戒女書 등에서 다루어졌던 것으로 이러한 意識을 金錢萬能이나 物質爲主化 되어가는 現代社會에서는 그 特性이 또다른 시각에서 強調되는 것이라 여겨진다.

3) 責任 및 崇敬

이 要因에는 돌아가신 분에 대한 祭祀나 추도식을 지내고 그에 필요한 飲食을 마련하는 內容 등이 포함되어 있다.

傳統社會에 있어서 祭祀는 祖上에 대한 崇敬의 표시이며, 마땅히 해야 할 바로 여겨왔고, 또한 實行해 왔다. 그래서 婚姻의 目的은 後祠를 얻기 위함에 있다고 했던 것이며, 이와같은 뜻은 각 個人이 반드시 行해야 할 責任意識으로 여겨졌고 崇敬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본다.

4) 實利的 儉約

이 要因에는 분에 넘치게 꾸어쓰거나 외상은 하지 않는다는 實利的인 儉約意識이 포함되어 있다. 士小節과 戒女書에서도 지적했듯이 자신의 분수를 아는 것은 바람직한 家庭運營의 태도라 여겨진다. 오늘날과 같이 신용카드가 보편화되고 있는 社會에서는 엄밀한 意味에 있어서 외상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겠으나, 이때에도 자신이 갚아갈 能力以上の 消費는 節制해야 할 것이 要求되기 때문에 有效適切하게 使用하여 이롭게 하는 것이 主婦들에게는 매우 重要的 것으로 여겨진다.

5) 溫故而知新 및 孝誠과 清廉意識

이 要因에는 집안에서 내려오는 物件을 保管하거나 가르침을 지키는 內容이 포함되어 있다.

傳統社會에서의 家庭教育에 대한 가르침을 오늘날 어떻게 受容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先行研究(李映美,

1987, 1989)에서도 지적되었듯이 傳統的인 가르침의 뜻을 바탕으로 오늘에 맞게 새롭게 創造하고 繼承해야 한다는 見解는 家庭經營觀 調查에서도 나타났다.

6) 自我克己의 謹厚와 體面意識

이 要因에는 「옷수선은 집에서 한다», 「손님대접은 반드시 집에서 한다», 「집에서는 숙옷바람으로 있지 않는다」는 등의 內容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個人中心의 時代로 變化하고 있는 오늘날에도 家庭에는 他人을 意識하여 번거로움을 감내하고 자해도 自己를 具現하려는 體面意識의 一面이 存在하는 것으로 여겨져 自我克己의 謹厚와 體面意識이라 命名하였다.

7) 自己儻性的 謹厚와 體面意識

傳統社會에서 子女는 後祠를 잇기 위한 存在로 여겨졌고(女四書 卷之二仁孝文皇后內訓, 奉祭祀章), 父母는 그들을 위해 온갖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왔던 바가 오늘날 家庭經營觀에 일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8) 自顯示의 體面意識

예로부터 女性的의 言語生活은 婦言의 가르침을 통하여 強調되어 항상 삼가고 조심하도록 해왔다. 顯庵家訓에서도 지적했듯이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時經의 가르침은 女性的의 음성이 자기집 담을 넘지 않도록 節制시켜 온 것과 자기집의 모든 흉허물을 밖에 드러내지 못하도록 경계해 온 것이라 하겠다. 이와같은 內容은 오늘날 우리의 家庭에서도 女性에 대한 가르침 중의 하나라고 본다. 그런데 言語生活은 他人과의 相互作用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으로 他人을 意識한 自尊의 體面意識이 저변에서 影響을 미쳐 나타나는 結果라 여겨진다.

9) 家督主義 子女觀

갑자기 손님이 오더라도 약속을 취소하고 만나는 것은, 손님대접에 대한 傳統社會의 禮의 根本 뜻에 바탕을 둔 것이라 본다. 다리(머리)를 팔아서 까지 극진히 손님대접을 하는 것(戒女書)은 精誠것 손님대접을 하므로써 밖에 나가 내 子息과 男便이 認定받고 待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에는 손님을 精誠것 대접하는 것은 基本禮儀로서 딸들에게 出嫁하기 前에 가르쳤던 內容이기도 하다(李映美, 1989, p. 185). 그리고 아들은 家庭의 代를

있는 존재로 중시했었으므로 좋은 아이 낳기 위한 胎教를 가르쳐 왔던 바도 家庭運營상 하나의 基準으로 作用해 왔으며, 이와 같은 意識은 오늘날까지도 어느 정도 影響을 미치고 있다 하겠다.

10) 傳統的 子女教育觀

傳統的인 女子教育觀은 規範類에서 보면 胎教, 男兒와 女兒의 教育內容, 바람직한 教育環境造成 등을 다루고 있는데 本 研究의 結果로는 바람직한 教育環境의 造成을 爲한 傳統的인 子女教育觀이 포함되어 있다. 즉, 孟子의 어머니가 孟子를 爲해 바람직한 教育環境을 만들어 주었다는 內容의 孟母三遷之教는 小學과 昭惠王后의 內訓, 宋時烈的 戒女書 等에도 引用되었고, 이는 우리의 生活속에 크게 作用하였다고 본다. 지나친 子女教育열의 과열로 인하여 子女의 意志力 약화를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 오늘날에는 그 概念이 다소 變化되었을지는 몰라도, 子女를 爲해 좋은 教育環境을 마련하고자 하는 父母로서의 마음가짐에는 變함이 없다고 본다.

위의 調査 結果와 같이 都市主婦의 家庭經營觀을 살펴볼때, 각 變因의 Eigen-Value가 높은 순서로 보면, 오늘날 主婦의 家庭經營觀에는 孝親崇仰의 和睦과 勤儉節約의 價値가 가장 중시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溫故而知新이나, 自我克己的, 顯示的 體面意識과 子女訓育의 傳統的 意識도 일부 남아 있다고 본다<表 IV-1>.

위와같은 意識으로 이루어져 있는 都市主婦의 全體 家庭經營觀을 點數化 시켜보면 28~84點의 範圍를 갖게 되는데, 點數가 높을수록 傳統志向的인 家庭經營觀을 나타낸다고 할때, 全般的으로 中位點(56점)을 上位하고 있어 傳統志向的인 家庭經營觀을 갖고 있었다.

獨立變因別 家庭經營觀을 보면 年齡이 높을수록 ($p < .01$), 學歷이 낮을수록 ($p < .01$) 傳統志向的이었다. 宗教別로는 佛敎集團에서 傳統志向的인 家庭經營觀을 갖고(69.44점)있었으나 集團間의 差異는 없었다.

오늘날 學校教育에 次중하여 家庭教育이나 家庭生活 등을 習得할 수 있는 機會가 적은 젊은층 보다는 家庭生活 가운데 安암리에 익혀온 家庭教育의 影響을

많이 받을 수 있었던 年齡이 높은 층에서 傳統社會에서의 家庭經營觀을 많은 부분 受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學歷이 낮은집단일수록 家庭經營觀이 傳統志向的인면도 過去의 女性教育은 오늘날과 같이 制度的인 學校教育이나 社會教育은 不在했고, 다만 相父母나 父母를 통한 閨房教育이었으므로 現代의 高學歷層이 받은 教育內容과는 달리 배움이 制限된 저학력층에서는 집에서 배워온 家庭教育의 影響이 그들의 삶에서 가장 크게 作用되어 나타난 것이라 여겨진다.

또한 佛敎集團이 傳統志向的인 家庭經營觀이 높은 것은 佛敎는 他宗教에 비하여 예로부터 相上들의 삶과 밀접한 關係를 가져왔던 宗教이기 때문인 것으로 본다.

3. 都市主婦의 家庭儀禮

1) 家庭儀禮의 節次와 基準

① 날짜 ; 各 儀禮를 行하는 날짜를 보면, 婚禮는 주로 양력(49.4%)과 음력(42.6%)을 같이 쓰며, 祭祀날은 음력(84.3%)을 基準으로 지내고, 喪禮일은 음력(53.5%)이 많으나, 양력과 혹은 경우에 따라 음력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家庭儀禮의 날짜는 음력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各 家庭에는 음력이 표시되어 있는 달력의 활용이 반드시 요

<표 IV-2> 독립변인별 가정경観관

독립변인	N	M	S.D	F	
연령	39세이하	43	67.91	5.76	** 6.43
	40세~49세이하	225	68.10	6.09	
	50세이상	393	69.69	5.53	
학력	국졸이하	74	70.24	6.43	** 4.25
	중졸	171	69.33	5.34	
	고졸	274	69.26	5.48	
	대졸이상	142	67.62	6.32	
종교	불교	246	69.44	5.31	0.79
	기독교	164	69.02	6.01	
	천주교	63	68.79	6.63	
	없음	188	68.60	5.89	

** $p < .01$

〈표 IV-3〉 가정의례 절차기준

절차 기준		가정의례		혼례		계례		상례	
		N	%	N	%	N	%		
날짜 정하기	양력을 기준으로 한다.	326	49.4	79	12.0	167	25.3		
	음력을 기준으로 한다.	281	42.6	557	84.3	353	53.5		
	경우에 따라서 다르다.	53	8.0	25	3.8	140	21.2		
	계	660	100.0	661	100.0	660	100.0		
시 간	편리하고 한가한 시간에	210	31.8	128	19.4	104	15.7		
	점을보아 좋다는 시간에	124	18.8	106	16.0	218	33.0		
	여러사람이 모일수 있는 시간 되는 대로	318	48.2	391	59.2	286	43.3		
	계	660	100.0	661	100.0	661	100.0		
장소 정하기	정해진 일정한 집	23	3.5	402	60.8	251	38.0		
	공공 장소	588	89.0	29	4.4	97	14.7		
	지금 본인이 살고 있는 집 기 타	44	6.7	226	34.2	277	41.9		
	계	661	100.0	661	100.0	661	100.0		
행사진행	항상 하던대로 한다.	79	12.0	189	28.6	82	12.4		
	집안의 어른이나 잘 아는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한다.	119	18.0	199	30.1	251	38.0		
	가족 혹은 집안이 의논하여 결정한다. 경우에 따라 다르다.	450	68.2	255	38.6	293	44.3		
	계	660	100.0	661	100.0	661	100.0		
음식대접	집에서 한다.	150	22.7	623	94.3	608	92.0		
	집밖의 음식점, 식당 등에서 한다.	502	76.1	27	4.1	32	4.8		
	가능한 안한다.	8	1.2	11	1.7	21	3.2		
	계	660	100.0	661	100.0	661	100.0		
예단, 답례품 제수전(품)을 보낼 때	전에 보낸다.	585	88.6	270	40.8	197	29.8		
	당일에 보낸다.	43	6.5	290	43.9	371	56.1		
	후에 보낸다.	28	4.2	50	7.6	61	9.2		
	보내지 않는다.	4	0.6	51	7.7	32	4.8		
계	660	100.0	661	100.0	661	100.0			
보내는 물품이나 금품의 양	형편보다 조금 넘치게	43	6.5	11	1.7	25	3.8		
	형편에 맞게 보낸다.	558	84.4	477	72.2	483	73.1		
	간단한 성의표시만 한다.	60	9.1	173	26.2	153	23.1		
	계	661	100.0	661	100.0	661	100.0		
옷 차 림	새로 만든다	403	61.0	38	5.7	235	35.6		
	빌려 입는다.	49	7.4	14	2.1	11	1.7		
	입던 옷을 깨끗이 입도록한다.	208	31.5	579	87.6	377	57.0		
	입던대로 입는다.	1	0.2	30	4.5	38	5.7		
계	661	100.0	661	100.0	661	100.0			

<표 IV-4> 독립변인별 가정의례 절차 기준(시간)

가정의례	변인	시간 빈도	편리하고 한가한 시간에		점을 보아 종다는 시간에		여러사람이 모일 수 있는 시간에		되는 대로		계		x ²	
			N	%	N	%	N	%	N	%	N	%		
			제 례	연령	39세이하 40~49세 50세이상 계	52 62 14 128	19.4 21.3 13.7 19.4	32 47 27 106	11.9 16.2 26.5 16.0	167 168 56 391	62.3 57.7 54.9 59.2	17 14 5 36		6.3 4.8 4.9 52
상 례	연령	39세이하 40~49세 50세이상 계	49 50 5 104	18.3 17.2 4.9 15.7	74 91 53 218	27.6 31.3 52.0 33.0	117 129 40 286	43.7 44.3 39.2 43.3	28 21 4 53	10.4 7.2 3.9 8.0	268 291 102 661	40.5 44.0 15.4 100.0	27.66**	
례	학력	국졸이하 중졸 고졸 대졸이상 계	6 23 51 24 104	8.1 13.5 18.6 16.9 15.7	37 73 76 32 218	50.0 42.7 27.7 22.5 33.0	27 63 123 73 286	36.5 36.8 44.9 51.4 43.3	4 12 24 13 53	5.4 7.0 8.8 9.2 8.0	74 171 274 142 661	11.2 25.9 41.5 21.5 100.0	29.26***	
		종교	불교 기독교 천주교 없음 계	29 28 18 29 104	11.8 17.1 28.6 15.4 15.7	120 30 15 53 218	48.8 18.3 23.8 28.2 33.0	80 91 25 90 286	32.5 55.5 39.7 47.9 43.3	17 15 5 16 53	6.9 9.1 7.9 8.5 8.5	246 164 63 188 661	37.2 24.8 9.5 28.4 100.0	55.52***

*p<.05 **p<.01 ***p<0.01

<표 IV-5> 독립변인별 가정의례 절차기준(장소)

가정의례	변인	장소 빈도	정해진 일정한 집		공공장소		지금 본인이 살고있는 집		기 타		계		x ²
			N	%	N	%	N	%	N	%	N	%	
			상례	연령	39세이하 40~49세 50세이상 계	114 104 33 251	42.5 35.7 32.4 38.0	46 44 7 97	17.2 15.1 6.9 14.7	92 126 59 277	34.3 43.3 57.8 41.9	16 17 3 36	

**p<.01

구된다 하겠다.

② 時間 : 時間은 각 行禮마다 여러사람이 모일수 있는 時間에 祭祀지내며(59.2%), 葬禮를 치루고(43.3%), 婚姻을 하며(48.2%) 특히 婚禮는 한가한 시간을(31.8%) 택하여, 80%가 많은 사람의 參席을 바랐

으며, 반면에 喪禮는 편리하고 한가한 시간 보다는 좋은시간(33.0%)을 택하는 경향이 높았다. 變因別로 祭祀時間이나 喪禮時間은 年齡이 낮을수록, 學歷이 높을수록 여러사람이 모일수 있는 時間으로 하는 傾向이었다(p<.05, p<.001). 그런데 특정한 집(42.5

〈표 IV-6〉 독립변인별 가정의례 절차기준(제수전·제수품을 보낼때)

가정의례	변인	제수전·제수품을 보낼때 빈도	행례전에 보낸다		당일에 보낸다		후에 보낸다		보내지 않는다		계		x ²
			N	%	N	%	N	%	N	%	N	%	
제례	학력	국졸이하	23	31.1	36	48.6	10	13.5	5	6.8	74	11.2	22.60**
		중	73	42.7	77	45.0	18	10.5	3	1.8	171	25.9	
		고	114	41.6	117	42.7	15	5.5	28	10.2	274	41.5	
		대졸이상	60	42.3	60	42.3	7	4.9	15	10.6	142	21.5	
		계	270	40.8	290	43.9	50	7.6	51	7.7	661	100.0	

**p < .01

%에서 해야한다는 傾向이 가장 높았고, 50세 이상에서는 本人이 사망한집에서 하기를 57.8%가 希望하는 하는 傾向이다.

젊은층에는 정해진 일정한집에서, 50세이상 연령층은 지금 本人이 살고 있는 집에서 喪禮를 치룬다는 것은 年齡間的 意識 差가 뚜렷이 存在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④ 행사진행 : 婚禮는 가족과 집안이 의논하여 결정한대로(68.2%) 하나, 祭禮나 喪禮는 집안이 의논하여 결정한대로(38.6%, 44.3%)하거나 집안의 어른이나 잘 아는 사람이 시키는 데로(30.1%, 38.0%) 하므로써 婚禮와는 달리 傳統儀式을 따르려는 溫故而知新的 意識을 엿볼 수 있다.

⑤ 음식대접 : 婚禮는 주로 外部에서 飲食을 대접하는 경향이나(76.1%), 祭禮나 喪禮에는 대부분 집에서 대접하고(94.3%, 92.0%)있는 것을 볼때, 혼례에는 誇示的인 體面意識의 家庭經營觀을 엿볼 수 있다.

⑥ 예단·답례품·제수전(품)·부의금을 보낼때 : 婚禮때는 예단과 답례품을 行禮전에 보내는 경향(88.6%)이나 제수전(품)은 祭祀 당일에(43.9%)에나 그전에(40.8%)보내고, 學歷이 높을수록 제수전(품)을 당일에 보내는 경향이 높아졌다(p<.01). 그리고 喪禮時 부의금(품)도 주로 당일에(56.1%) 보낸다. 또한 婚禮때 예단을 보내지 않는 경우는, 다른 행례때보다 가장 낮게(0.6%)나타나 婚禮에는 顯示的 體面意識과 誇示的 體面意識이 높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며, 일부 매우 實利的인 儉約도 엿볼 수 있다. 그러

나 祭祀 때 祭需錢(品)을 보내는 것은 이를 家族內的 일이라 여겨, 家族間에 和睦하고 相上에 대한 崇仰意識을 表示하고자 하는데서 나타난 결과라 여겨진다.

⑦ 물품이나 금품의 양 : 婚禮때 예단이나 답례품은 형편에 맞게 보내며(84.4%), 祭需錢(品)이나 聘儀金(品)도 각기 형편에 맞게(72.2%, 73.1%), 婚禮때 형편보다 넘치가 하는 경우가 다른 行禮때 보내는 물품이나 금품의 양보다 많았고, 오히려 祭需錢(品)이나 聘儀金(品)에는 간단한 誠意 表示만 하는 경우도 많았다(26.2%, 23.1%). 이를 볼때, 經濟的인 것과 관련이 있으면 祭禮나 喪禮에도 崇敬意識보다는 實利的 儉約意識이 더 크게 作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吉凶事는 곧 本人의 일이라는 孝悌友愛爲主의 傳統的 序次意識은 婚禮와 喪·祭禮에서 差異가 存在함을 알 수 있다.

⑧ 옷차림 : 각 行禮때 옷을 새로 만드는 경우는 婚禮가 가장 많았으며(61.0%), 상례나 제사때는 입던 옷을 깨끗이 입는 경향이였다(57.0%, 87.6%) 단, 喪禮때도 옷을 새로 만드는 경우도 35.6%이며, 婚禮때도 입던 옷을 깨끗이 입는 경우도 31.5%였다. 그러나 전반적인 경향을 볼때, 婚禮에는 對外的·顯示的인 體面意識이 강한것으로 생각된다.

2) 家庭儀禮

(1) 婚禮行禮

婚禮行禮에 대한 14個 問項의 獨立變因別 差異는 <表 IV-7>과 같다.

婚媾은 예로부터 仲媒婚으로 해왔으나 本 研究結果 전반적으로 경우에 따라 다르다(70.5%)고 했으

<표 IV-7> 독립변인별 혼례행태

구분 문항	연령		학력		종교		N=661 (%)				
	39세 이하	40~ 49세 이상	국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 이상	불교	기독교 천주교 없음		계			
	제	제	계	계	계	계		계			
혼인하는 자녀에게 힘든 일이 있 어도 평생토록 잘 지내도록 당부 한다.	③ 1.5	0.7	0.0	0.9	0.0	1.2	1.1	0.4	1.8	0.0	0.9
	② 21.6	10.0	10.8	14.8	14.9	11.7	14.2	19.7	14.8	17.0	14.8
	① 76.9	89.3	89.2	84.3	85.1	87.1	84.7	79.6	84.3	81.9	84.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중매혼으로 하도록 한다.	③ 21.6	16.5	14.7	18.3	14.9	15.8	17.2	25.4	18.3	19.7	18.3
	② 72.8	70.1	65.7	70.5	62.2	69.6	73.7	69.7	70.5	70.2	68.3
	① 5.6	13.4	19.6	11.2	23.0	14.6	9.1	4.9	11.2	10.1	11.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혼인날을 정했어도 양가에서 초상이 나면 탈상후로 미룬다.	③ 4.1	3.4	4.9	3.9	4.1	3.5	2.9	6.3	3.9	3.2	3.9
	② 31.0	23.7	24.5	26.8	24.3	24.6	23.4	37.3	26.8	27.1	26.8
	① 64.9	72.9	70.6	69.3	71.6	71.9	73.7	56.3	69.3	69.7	69.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예년은 머신이나 양말등 본인의 능력범위로 간소하게 하며 혼인후 에 보낸다.	③ 18.3	15.5	27.5	18.5	12.2	22.2	17.5	19.0	18.5	16.5	18.5
	② 41.0	44.0	36.3	41.6	39.2	38.6	43.1	43.7	41.6	45.7	41.6
	① 40.7	40.5	36.3	39.9	48.6	39.2	39.4	37.3	39.9	37.8	39.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약혼식은 하지 않고 사주만 보낸다.	③ 15.7	26.1	25.5	21.8	18.9	24.0	20.1	23.9	21.8	21.3	21.8
	② 53.0	48.8	38.2	48.9	44.6	45.6	51.5	50.0	48.9	51.6	48.9
	① 31.3	25.1	36.3	29.3	36.5	30.4	28.5	26.1	29.3	27.1	29.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아버지가 안계신 신랑 신부의 형 철장은 할아버지나 숙부등 남자의 이름으로 보낸다.	③ 29.5	29.6	24.5	28.7	25.7	29.8	28.5	29.6	28.7	29.8	28.7
	② 39.9	33.0	27.5	34.9	31.1	26.3	39.4	38.7	34.9	33.5	34.9
	① 30.6	37.5	48.0	36.3	43.2	43.9	32.1	31.7	36.3	36.7	36.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탐에는 청색·홍색 옷감과 혼서 지만 남고 폐물은 넣지 않는다.	③ 29.9	29.2	25.5	28.9	24.3	28.1	29.9	30.3	28.9	32.4	28.9
	② 36.2	40.9	41.2	39.0	33.8	41.5	39.4	38.0	39.0	37.2	39.0
	① 34.0	29.9	33.3	32.1	41.9	30.4	30.7	31.7	32.1	30.3	32.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혼서지나 혼인서약서는 평생 보관하도록 한다.	③	6.7	6.5	5.9	6.5	5.4	6.4	7.7	4.9	6.5	8.0	4.5	7.3	7.9	6.5
	②	13.8	14.1	8.8	13.2	12.2	14.0	12.8	13.4	13.2	11.2	15.0	9.1	22.2	13.2
	①	79.5	79.4	85.3	80.3	82.4	79.5	79.6	81.7	80.3	80.9	80.5	83.5	69.8	80.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혼례복은 전통한복을 입도록 한다.	③	25.0	20.6	28.4	23.6	20.3	23.4	21.9	28.9	23.6	21.3	26.8	21.3	23.8	23.6
	②	51.9	56.4	43.1	52.5	45.9	49.1	58.0	49.3	52.5	53.7	50.4	54.3	52.4	52.5
	①	23.1	23.0	28.4	23.9	33.8	27.5	20.1	21.8	23.9	25.0	22.8	24.4	23.8	23.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폐백을 드릴때는 원삼이나 한복 등 전통한복을 입는다.	③	10.1	5.2	9.8	7.9	6.8	8.8	7.3	8.5	7.9	6.9	7.7	9.1	7.9	7.9
	②	22.0	23.4	20.6	22.4	24.3	17.5	21.9	28.5	22.4	21.8	26.4	14.6	28.6	22.4
	①	67.9	71.5	69.6	69.7	68.9	73.7	70.8	63.4	69.7	71.3	65.9	76.2	63.5	69.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신혼여행에서 돌아올때는 신부 짐으로 먼저 간다.	③	29.5	33.3	23.5	30.3	45.9	32.2	31.0	18.3	30.3	33.5	30.1	26.2	31.7	30.3
	②	41.4	30.6	32.4	35.2	20.3	34.5	39.1	36.6	35.2	35.1	31.7	41.5	33.3	35.2
	①	29.1	36.1	44.1	34.5	33.8	33.3	29.9	45.1	34.5	31.4	38.2	32.3	34.9	34.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폐백을 드릴때 절은 신부만 한다.	③	79.1	73.5	73.5	75.8	71.6	70.2	80.7	75.4	75.8	79.8	72.4	76.8	74.6	75.8
	②	15.7	15.8	12.7	15.3	13.5	15.8	13.5	19.0	15.3	12.8	18.7	12.8	15.9	15.3
	①	5.2	10.7	13.7	8.9	14.9	14.0	5.8	5.6	8.9	7.4	8.9	10.4	9.5	8.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시할머니가 살아계시면 폐백은 할머니것과 시부모님 것을 따로 두벌 준비한다.	③	27.2	19.2	24.5	23.3	20.3	22.2	24.8	23.2	23.3	28.2	19.5	25.0	19.0	23.3
	②	22.4	21.3	16.7	21.0	13.5	17.5	22.6	26.1	21.0	20.2	20.7	22.6	20.6	21.0
	①	50.4	59.5	58.8	55.7	66.2	60.2	52.6	50.7	55.7	51.6	59.8	52.4	60.3	55.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폐백시 고기와 대추는 시부모에게 폐백절을 할 때만 놓는다.	③	32.8	24.7	30.4	28.9	24.3	23.4	33.6	28.9	28.9	35.6	23.2	30.5	27.0	28.9
	②	36.2	31.6	28.4	33.0	32.4	33.3	30.3	38.0	33.0	31.4	36.2	29.3	34.9	33.0
	①	31.0	43.6	41.2	38.1	43.2	43.3	36.1	33.1	38.1	33.0	40.7	40.2	38.1	38.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p<.05 **p<.001, ***p<.001, ③ 그렇게 한다 ② 경우에 따라 다르다 ① 그렇게 하지 않는다.
 — 각 cell의 빈도가 5를 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집단간의 차이가 있어도 해석하기 어렵다.

며, 年齡이 적을수록($p < .001$) 學歷이 高卒일때($p < .001$, 73.7%) 그 응답율이 높았고, 大卒集團도 주로 경우에 따라 다르다(69.7%)고 했으나 중매혼으로 한다(25.4%)는 응답이 다른 학력집단보다 높았다. 자유연애혼이나, 연애혼과 중매혼의 절충식도 있으나 大卒일 경우, 수학기간이 일반적으로 婚姻年齡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대부분 학업을 마친후 婚姻하게 되므로 상대방의 여러가지 사항을 알고, 서로 신뢰할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仲媒婚으로 하는 경우가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婚姻날을 정했어도 兩家에서 喪이 나면 脫喪後로 그 婚姻을 미루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69.3%)는 경향이였으며, 高卒($p < .05$, 73.7%)일때 그 응답율이 높았다.

그리고 예단을 보낼때, 본인의 능력범위로 간단하게 보내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41.6%), 그리고 그렇지 않다(39.9%)고 하여, 婚姻의 예단은 本人의 능력을 넘어서 과다한 양이 보내지고 있음을 볼때, 이 역시 自己誇示的, 自己顯示的 體面意識이 많이 作用한 것으로 보인다. 약혼식은 하지 않고 四柱만 보내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 한다(48.9%)와 그렇지 않다(29.3%)는 경향이며, 年齡이 낮을수록($p < .001$)경우에 따라서 다르다는 비율은 높아졌다.

그리고 婚姻의 청첩장을 보낼때, 아버지가 안계신 경우라면, 할아버지나 숙부등 남자의 이름으로 보내는 것이 傳統儀式이나 전반적으로 경우에 따라(34.9%)하거나 그렇지 않다(36.3%)고 하였으며, 年齡이 높을수록($p < .05$) 그 비율은 높게 나타나 家庭에서 男性을 中心으로 한 序次意識이 年齡이 높은 층에는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함에는 청·홍색 옷감과 婚書紙만 넣고 패물을 넣지 않는다는 儀式은 경우에 따라서 하거나(39.0%), 그렇지 않다(32.1%)고 하여, 예단을 보낼때나 함을 보낼때, 각기 自己顯示的인 體面意識이 作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홍색 옷감이 없으면, 종이에 청색·홍색 물감을 드려서 넣어 보냈던 그 뜻이 오늘날 物質爲主의 價値追求로 인하여, 褪色되어지고, 예단이나 함이 개인의 富의 尺度를 나타내기도 하여, 본인의 능력범위내에서 해야할 예단이 과다하게 되

는 傾向이 있다.

婚禮服은 傳統韓服을 입는다가 23.9%였고 대부분 경우에 따라 다르다(34.9%)고 하였으며, 혼서지나 혼인서약서는 평생 보관하도록 해야 하나 잘 지켜지지 않았다(80.3%) 또한 見舅故때 원삼이나 활옷 등을 입는다는 것도 전반적으로 지켜지지 않았으나(69.7%), 오늘날 婚姻式이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예식장에서 그 衣服을 원삼과 사모관대로 하고 있는 것을 볼때, 일반적인 行禮 경향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新婚旅行에서 돌아올때 新婦집으로 먼저 간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경우에 따라서 다르다(35.2%)고 하거나 신랑집으로 먼저 간다(34.5%)는 경향이며, 年齡이 높을수록 신랑의 집으로 먼저 간다고 하고($p < .05$), 學歷이 낮을수록 신부집으로 먼저 간다($p < .001$)고 하여, 대부분 妻家로 먼저 들린다(47.0%)는 李吉杓의 研究(1982, p. 101)와는 差異를 보였다.

見舅故때 짚은 新婦만 하는 경향(75.8%)이었고, 學歷이 高卒일때 그 응답율이 가장 높았다($p < .05$, 80.7%).

또한 媿祖父母님이 生存時라도 폐백을 父母님것과 祖父母님것을 따로 마련하는 것이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55.7%)는 경향이며, 見舅姑때 고기와 대추는 媿父母님께 절할 때만 놓는다는 것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38.1%)거나 경우에 따라 다르다(33.0%)고 하였다. 이는 年齡이 40代인 集團에서 잘 지켜지지 않았다($p < .05$, 43.1%).

(2) 祭禮行禮

祭禮行禮는 年齡, 學歷, 宗教別로 각기 有意한 差를 많이 나타내는 것으로 先行研究와 유사한 경향이였다.

祭祀날 喪이 나도 48.4%는 祭祀를 지낸다고 하였으며, 경우에 따라서 다르다(32.5%)고도 하였다. 高卒일 경우, 祭祀날 喪이 나도 祭祀를 지낸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p < .05$, 50.7%).

제사상의 陳設은 일정한 형식대로 놓는다는 傳統 儀禮는 전반적으로 지켜지지 않았고(82.3%), 學歷이 낮을수록($p < .01$), 基督教 集團일때($p < .001$, 89.8%), 더욱 지켜지지 않았으며, 陳設前에는 飲食맛을 보지도 먹지도 말아야 한다는 儀式도 전반적으로 지

<표 IV-8> 독립변인별 제례행태

N = 661 (%)

변인	연령		학력		종교			
	39세 이하	40~49세 이상	국졸 이하	중졸 고졸 이상	불교	기독교 천주교 없음	계	x ²
문항								
구분 제사나 추도식에는 자녀들에게 돌아가신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여 생각하도록 한다.	③	3.4 4.1 6.9 4.2	4.1 3.5 4.7 4.2	4.1 1.8 2.6 0.7	1.8	4.8 2.8 6.1 3.2	4.2	
	②	15.3 15.8 19.6 16.2	17.6 14.0 16.8 16.9	17.6 14.0 16.8 16.9	16.2	11.7 19.9 15.2 17.5	16.2	7.93
	①	81.3 80.1 73.5 79.6	78.4 82.5 78.5 78.9	78.4 82.5 78.5 78.9	79.6	83.5 77.2 78.7 79.4	79.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제사날 상이 나면 제사나 추도식을 지낸다.	③	1.1 2.7 1.0 1.8	1.4 1.8 2.6 0.7	1.4 1.8 2.6 0.7	1.8	1.1 1.2 4.3 0.0	1.8	
	②	6.3 8.9 5.9 7.4	5.4 7.6 4.7 13.4	5.4 7.6 4.7 13.4	7.4	4.8 6.9 12.2 4.8	7.4	*
	①	92.5 88.3 93.1 90.8	93.2 90.6 92.7 85.9	93.2 90.6 92.7 85.9	90.8	94.1 91.9 83.5 95.2	90.8	16.4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제사날 상이 나면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③	17.2 21.0 18.6 19.1	25.7 19.3 21.5 10.6	25.7 19.3 21.5 10.6	19.1	14.9 22.4 18.3 20.6	19.1	
	②	32.5 32.6 32.4 32.5	28.4 35.7 27.7 40.1	28.4 35.7 27.7 40.1	32.5	35.6 30.9 32.9 28.6	32.5	4.58
	①	50.4 46.4 49.0 48.4	45.9 45.0 50.7 49.3	45.9 45.0 50.7 49.3	48.4	49.5 46.7 48.8 50.8	48.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제사음식을 상에 놓을 때는 일정한 형식대로 놓는다.	③	8.6 6.9 3.9 7.1	0.0 4.1 9.9 9.2	0.0 4.1 9.9 9.2	7.1	2.7 2.8 18.3 7.9	7.1	
	②	10.4 10.7 10.8 10.6	6.8 8.2 11.3 14.1	6.8 8.2 11.3 14.1	10.6	8.0 7.3 16.5 15.9	10.6	**
	①	81.0 82.5 85.3 82.3	93.2 87.7 78.8 76.8	93.2 87.7 78.8 76.8	82.3	89.4 89.8 65.2 76.2	82.3	60.0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제사음식을 먼저 맛을 보지도 먹지도 않는다.	③	27.2 22.3 17.6 23.6	16.2 17.0 28.1 26.8	16.2 17.0 28.1 26.8	23.6	20.2 18.3 34.8 25.4	23.6	
	②	27.2 23.4 20.6 24.5	16.2 22.8 25.5 28.9	16.2 22.8 25.5 28.9	24.5	26.1 22.8 21.3 54.9	24.6	**
	①	45.5 54.3 61.8 51.9	67.6 60.2 46.4 44.4	67.6 60.2 46.4 44.4	51.9	53.7 58.9 43.9 39.7	51.9	22.8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할아버지제사 때 큰 아들이 없으면 다른 아들이 있어도 장손이 지낸다.	③	25.7 16.8 23.5 21.5	18.9 17.5 23.0 24.6	18.9 17.5 23.0 24.6	21.5	23.9 19.5 23.8 15.9	21.5	
	②	34.3 29.2 27.5 31.0	21.6 24.6 34.3 37.3	21.6 24.6 34.3 37.3	31.0	28.2 26.0 38.4 39.7	31.0	*
	①	39.9 54.0 49.0 47.5	59.5 57.9 42.7 38.0	59.5 57.9 42.7 38.0	47.5	47.9 54.5 37.8 44.4	47.5	15.0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제사는 돌아가신 날 첫 새벽(12시 이후)에 지낸다.	③	44.8 34.4 29.4 37.8	16.2 31.0 40.9 51.4	16.2 31.0 40.9 51.4	37.8	36.2 32.9 50.0 30.2	37.8	
	②	25.0 31.6 26.5 28.1	18.9 26.3 29.9 31.7	18.9 26.3 29.9 31.7	28.1	27.1 21.5 36.0 36.5	28.1	**
	①	30.2 34.0 44.1 34.0	64.9 42.7 29.2 16.9	64.9 42.7 29.2 16.9	34.0	36.7 45.5 14.0 33.3	34.0	47.3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차례는 축문이 없고 슬도 한잔만 쓴다.	③	53.0	46.4	64.7	51.9	40.5	56.7	55.1	45.8	51.9	51.6	52.4	53.7	46.0	51.9
	②	22.8	27.5	17.6	24.1	29.7	19.3	25.5	23.9	24.1	25.0	23.2	23.8	25.4	24.1
	①	24.3	26.1	17.6	24.1	29.7	24.0	19.3	30.3	24.1	23.4	24.4	22.6	28.4	24.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제사나 추도식을 지낼 때는 제부 이나 친당복 등 예복을 입는다.	③	50.0	36.4	34.3	41.6	35.1	36.8	43.8	46.5	41.6	39.9	35.8	52.4	41.3	41.6
	②	25.4	30.2	27.5	27.8	25.7	32.7	27.4	23.9	27.8	31.4	30.9	23.2	17.5	27.8
	①	24.6	33.3	38.2	30.6	39.2	30.4	28.8	29.6	30.6	28.7	33.3	24.4	41.3	30.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차례를 지낼 때는 화려하고 이름다운 옷을 입는다.	③	72.8	69.4	75.5	71.7	66.2	69.6	75.9	69.0	71.7	70.2	72.0	75.0	66.7	71.7
	②	16.8	17.2	12.7	16.3	21.6	14.0	12.0	24.6	16.3	19.7	15.4	14.6	14.3	16.3
	①	10.4	13.4	11.8	12.0	12.2	16.4	12.0	6.3	12.0	10.1	12.6	10.4	19.0	12.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도식이나 제사는 꼭 큰 아들의 집에서 지낸다.	③	18.7	16.8	13.7	17.1	9.5	14.6	19.0	20.4	17.1	14.4	17.1	21.3	14.3	17.1
	②	33.2	32.3	32.4	32.7	31.1	30.4	33.2	35.2	32.7	34.6	33.3	29.3	33.3	32.9
	①	48.2	50.9	53.9	50.3	50.5	55.0	47.8	44.4	50.3	51.1	49.6	49.4	52.4	50.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제사절은 북쪽을 향해서 한다.	③	18.7	16.8	13.7	17.1	9.5	14.6	19.0	20.4	17.1	14.4	17.1	21.3	14.3	17.1
	②	29.9	26.1	22.5	27.1	20.3	27.5	26.3	31.7	27.1	27.1	26.0	28.0	28.6	27.1
	①	38.8	46.0	48.0	43.4	47.3	45.6	42.3	40.8	43.4	49.5	46.3	35.4	34.9	43.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부모님 내외분이 다 돌아가셨다면 한분의 제사라도 두분을 함께 모신다.	③	26.5	24.7	25.5	25.6	24.3	24.6	29.6	19.7	25.6	21.3	24.8	34.1	19.0	25.6
	②	16.8	15.5	10.8	15.3	9.5	12.3	15.0	22.5	15.3	16.0	12.2	15.9	23.8	15.3
	①	56.7	59.8	63.7	59.2	66.2	63.2	55.5	57.7	59.2	62.8	63.0	50.0	57.1	59.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제사를 지낸 후에는 참석 한 사람이 모두 음복을 한다.	③	17.9	16.2	18.6	17.2	9.5	15.8	20.8	16.2	17.2	14.9	13.8	26.8	12.7	17.2
	②	23.5	22.7	13.7	21.6	13.5	21.6	20.8	27.5	21.6	20.2	21.5	21.3	27.0	21.6
	①	58.6	61.2	67.6	61.1	77.0	62.6	58.4	56.3	61.1	64.9	64.6	51.8	60.3	61.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p<.05 **p<.01 ***p<.001, ③ 그렇게 한다 ② 경우에 따라 다르다 ① 그렇게 하지 않는다
 — 각 cell의 빈도가 5를 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집단간의 차이가 있어도 해석하기 어렵다.

켜지지 않았고(51.9%) 學歷이 낮을수록($p < .01$) 그리고 基督教集團일때($p < .001$, 58.9%) 그 응답율이 높았다. 誠精을 다하고, 조심하여 祭祀를 준비했던 傳統社會의 祖上에 대한 崇敬意識은 본래의 의미를 喪失한 채, 단순한 外形만을 따르는 경향을 엿볼 수 있다.

할아버지 제사에 큰 아들이 없을때는 다른 아들이 있어도 長孫이 지내도록 하는 傳統儀式은 전반적으로 따르지 않으며(47.5%), 40대($p < .01$, 54.01%)와 學歷이 낮을수록($p < .01$), 그리고 基督教集團($p < .05$, 54.5%)에서 그 응답율이 높았다. 즉, 祭祀에 있어서도 婚禮때와 傳統社會의 序次意識에 대한 觀念이 변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祭祀는 돌아가신날 첫새벽(12이후)에 지내는 경우가 37.8%로 많았고, 그렇지 않다는 경우도 34.0%였다. 이는 朴綉貞의 研究(1989) 結果와는 다소 差異가 있다.

年齡이 적을수록($p < .05$), 學歷이 높을수록($p < .001$), 그리고 天主教集團($p < .001$, 50.0%)에서 傳統儀式대로 첫새벽에 祭祀를 지내고 있었다. 祭祀의 時間을 지킨다는 것은 祭祀에 임하는 後孫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하나의 責任意識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茶禮에는 祝文이 없고 술도 한번만 쓴다는 儀式을 따르고 있으며(51.9%) 50세 이상집단(64.7%)과 39세이하집단(53.0%)에서($p < .05$), 그리고 中卒(56.7%)과 高卒(55.1%) 집단에서($p < .05$) 각각 그 응답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全般的으로 祭祀나 追悼式때 祭服이나 천담복등 禮服을 입으며(41.6%) 年齡이 적을수록($p < .01$), 그리고 天主教集團($p < .01$, 52.4%)에서 이를 지키는 傾向이었다. 또한 茶禮를 지낼때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傾向이며(71.7%), 高卒인 경우가 그 응답율이 가장 높았다($p < .01$, 75.9%), 다른 儀式과는 달리 禮服에 대한 것은 傳統式대로 따르려는 傾向이 높는데, 이는 現代人들의 本人中心의이고 外形的인 면에 치중하는 특성은 그대로 반영하는 결과라 사료된다.

父母님 內外분이 다 돌아가셨다면 한분의 祭祀라

도 두분을 함께 모신다는 것도 전반적으로 지켜지지 않고(59.2%) 學歷이 國卒以下集團($p < .05$, 66.2%)과 中卒集團($p < .05$, 63.2%)이, 그리고 基督教集團($p < .05$, 63.0%)이 이를 가장 지키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祭祀後 飲福을 하는 것은 家族에게 共同體儀式을 심어주며, 相上을 中心으로 하여 家內的 和睦을 가져오는 바람직한 儀式이나, 本 調査 結果에서는 飲福은 전반적으로 하지 않으며(61.6%) 學歷이 낮을수록($p < .05$), 그리고 佛教集團(64.9%)과 基督教集團(64.6%)에서 그 응답율이 높았다($p < .05$).

(3) 喪禮行禮

喪禮는 形式보다는 슬퍼하는데 뜻이 있고, 병이 위독할 경우는 입원중이라도 집으로 모셔 운명 하시도록 하는 것이 傳統的인 喪禮行禮이나, 오늘날 都市主婦들은 전반적으로 그 반대의 경향을 보였다(表 IV-10).

특히 宗教가 없는 集團은 집으로 모신다는 것에 반대응답을 하였다($p < .001$, 50.0%). 즉 이는 편리화와 간소화를 지향하는 現代人들의 實利的인 價値基準에 따른 結果라 여겨진다.

상제는 탈상때까지 검소하며, 화려한 옷이나 화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켜지지 않는 傾向이며(66.0%), 年齡이 많을수록($p < .05$), 學歷이 낮을수록($p < .05$), 그 傾向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傾向은 급속히 변화하고 발전해 나아가는 現代社會生活 속에서 탈상전이나 할지라도 個人에게 있어서는 매우 불가피한 일로 인하여 화려한 옷이나 화장을 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社會的인 影響에 의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個人主義가 만연되는 오늘날의 단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壽衣는 돌아가시기 전에 만들고, 보통 윤달에 만드는 것이나 이도 전반적으로 지켜지지 않으며(56.3%), 特히 年齡이 40대($p < .001$, 64.9%)와 50세이상($p < .001$, 64.7%)인 集團에서 그 응답율이 높았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때 큰 아들이 없으며 다른 아들이 있어도 長孫이 喪主가 되는 傳統儀禮도 전반적으로 지키지 않고(60.8%), 年齡이 많을수록($p < .01$), 學歷이 낮을수록($p < .01$), 그리고 基督教集團

<표 IV-9> 독립변인별 상례행태

구분	연 령		학 력		종 교		N=661 (%)	
	39세 이하	40~49세 이상	국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 이상	불교 기독교 천주교 없음	계		
문항	계	계	계	계	계	계	계	
상례는 형식보다도 슬퍼하는데 뜻이 있다.	③	16.0 13.7 18.6 15.4	17.6 12.3 17.9 13.4 15.4	17.6 12.3 17.9 13.4 15.4	17.6 13.4 17.7 11.1 15.4	17.6 13.4 17.7 11.1 15.4	17.6 13.4 17.7 11.1 15.4	
	②	20.1 20.3 15.7 19.5	12.2 19.9 20.1 21.8 19.2	12.2 19.9 20.1 21.8 19.2	12.2 19.9 20.1 21.8 19.2	12.2 19.9 20.1 21.8 19.2	12.2 19.9 20.1 21.8 19.2	6.17
	①	63.8 66.0 65.7 65.1	70.3 67.8 62.0 64.8 65.1	70.3 67.8 62.0 64.8 65.1	70.3 67.8 62.0 64.8 65.1	70.3 67.8 62.0 64.8 65.1	70.3 67.8 62.0 64.8 65.1	6.4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병이 위독하면 임원 중이라도 짐으로 모신다.	③	21.3 20.3 18.6 20.4	27.0 17.5 20.4 20.4 20.4	27.0 17.5 20.4 20.4 20.4	27.0 17.5 20.4 20.4 20.4	27.0 17.5 20.4 20.4 20.4	27.0 17.5 20.4 20.4 20.4	
	②	36.9 27.1 30.4 31.6	21.6 26.3 35.0 36.6 31.6	21.6 26.3 35.0 36.6 31.6	21.6 26.3 35.0 36.6 31.6	21.6 26.3 35.0 36.6 31.6	21.6 26.3 35.0 36.6 31.6	12.25
	①	41.8 52.6 51.0 48.0	51.4 56.1 44.5 43.0 48.0	51.4 56.1 44.5 43.0 48.0	51.4 56.1 44.5 43.0 48.0	51.4 56.1 44.5 43.0 48.0	51.4 56.1 44.5 43.0 48.0	25.1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탈상전에는 그 집 안에서 지내던 제사나 추도식도 하지 않는다.	③	35.8 29.9 28.4 32.1	36.5 30.4 33.2 29.6 32.1	36.5 30.4 33.2 29.6 32.1	36.5 30.4 33.2 29.6 32.1	36.5 30.4 33.2 29.6 32.1	36.5 30.4 33.2 29.6 32.1	
	②	33.6 32.6 31.4 32.8	18.9 31.6 33.9 39.4 32.8	18.9 31.6 33.9 39.4 32.8	18.9 31.6 33.9 39.4 32.8	18.9 31.6 33.9 39.4 32.8	18.9 31.6 33.9 39.4 32.8	10.81
	①	30.6 37.5 40.2 35.1	44.6 38.0 32.8 31.0 35.1	44.6 38.0 32.8 31.0 35.1	44.6 38.0 32.8 31.0 35.1	44.6 38.0 32.8 31.0 35.1	44.6 38.0 32.8 31.0 35.1	4.5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상제도 탈상때까지 화려한 옷이나 화장을 하지 않는다.	③	14.9 8.6 7.8 11.0	10.8 10.5 11.7 10.6 11.0	10.8 10.5 11.7 10.6 11.0	10.8 10.5 11.7 10.6 11.0	10.8 10.5 11.7 10.6 11.0	10.8 10.5 11.7 10.6 11.0	
	②	25.7 21.0 21.6 23.0	17.6 19.3 21.2 33.8 23.0	17.6 19.3 21.2 33.8 23.0	17.6 19.3 21.2 33.8 23.0	17.6 19.3 21.2 33.8 23.0	17.6 19.3 21.2 33.8 23.0	12.92
	①	59.3 70.4 70.6 66.0	71.6 70.2 67.2 55.6 66.0	71.6 70.2 67.2 55.6 66.0	71.6 70.2 67.2 55.6 66.0	71.6 70.2 67.2 55.6 66.0	71.6 70.2 67.2 55.6 66.0	4.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위는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만들고 보통 윤달에 한다.	③	21.3 11.3 13.7 15.7	14.9 12.3 18.2 15.5 15.7	14.9 12.3 18.2 15.5 15.7	14.9 12.3 18.2 15.5 15.7	14.9 12.3 18.2 15.5 15.7	14.9 12.3 18.2 15.5 15.7	
	②	21.3 23.7 21.6 28.0	25.7 24.0 28.5 33.1 28.0	25.7 24.0 28.5 33.1 28.0	25.7 24.0 28.5 33.1 28.0	25.7 24.0 28.5 33.1 28.0	25.7 24.0 28.5 33.1 28.0	7.77
	①	43.7 64.9 64.7 56.3	59.5 63.7 53.3 51.4 56.3	59.5 63.7 53.3 51.4 56.3	59.5 63.7 53.3 51.4 56.3	59.5 63.7 53.3 51.4 56.3	59.5 63.7 53.3 51.4 56.3	11.8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때 큰 아들이 없으면 다른 아들이 있 어도 장손이 상주가 된다.	③	22.0 14.1 17.6 17.9	16.2 12.9 18.6 23.2 17.9	16.2 12.9 18.6 23.2 17.9	16.2 12.9 18.6 23.2 17.9	16.2 12.9 18.6 23.2 17.9	16.2 12.9 18.6 23.2 17.9	
	②	25.0 21.3 11.8 21.3	8.1 18.1 23.7 27.5 21.3	8.1 18.1 23.7 27.5 21.3	8.1 18.1 23.7 27.5 21.3	8.1 18.1 23.7 27.5 21.3	8.1 18.1 23.7 27.5 21.3	23.14
	①	53.0 64.6 70.6 60.8	75.7 69.0 57.7 49.3 60.8	75.7 69.0 57.7 49.3 60.8	75.7 69.0 57.7 49.3 60.8	75.7 69.0 57.7 49.3 60.8	75.7 69.0 57.7 49.3 60.8	13.4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탈상전에는 다른집 결혼식이나 모임에는 가지 않는다.	③	26.1 22.7 11.8 22.4	13.5 19.9 26.3 22.5 22.4	13.5 19.9 26.3 22.5 22.4	13.5 19.9 26.3 22.5 22.4	13.5 19.9 26.3 22.5 22.4	13.5 19.9 26.3 22.5 22.4	
	②	29.5 29.9 37.3 30.9	29.7 27.5 31.0 35.2 30.9	29.7 27.5 31.0 35.2 30.9	29.7 27.5 31.0 35.2 30.9	29.7 27.5 31.0 35.2 30.9	29.7 27.5 31.0 35.2 30.9	10.90
	①	44.4 47.4 51.9 46.7	56.8 52.6 42.7 42.3 46.7	56.8 52.6 42.7 42.3 46.7	56.8 52.6 42.7 42.3 46.7	56.8 52.6 42.7 42.3 46.7	56.8 52.6 42.7 42.3 46.7	8.5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시신을 목욕시킬때 여자편 여자가 한다.	③	25.0	23.7	24.5	24.	31.1	27.5	24.8	16.2	24.4	21.3	24.4	32.	12.7	24.4
	②	41.0	35.7	37.3	38.1	32.4	35.7	43.1	34.5	38.1	44.1	33.3	37.2	41.3	38.1
	①	34.0	40.5	38.2	37.5	36.5	36.8	32.1	49.3	37.5	34.6	42.3	30.5	46.0	37.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상가집을 방문할 때는 검은색 옷보다는 옥색치마저고리나 흰옷을 입는다.	③	51.9	47.1	46.1	48.9	43.2	40.9	53.6	52.1	48.9	49.5	48.0	48.8	50.8	48.9
	②	33.6	27.8	25.5	29.8	21.6	32.7	26.4	35.2	29.8	30.9	27.6	31.7	30.2	29.8
	①	14.6	25.1	28.4	21.3	35.1	26.3	19.0	12.7	21.3	19.7	24.4	19.5	19.0	21.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할아버지, 할머니와 부모가 돌아가셨을때 다르다.	③	63.1	47.8	57.8	55.5	63.5	48.5	57.7	55.6	55.5	54.3	50.8	61.6	61.9	55.5
	②	19.4	19.2	14.7	18.6	12.2	15.8	17.9	26.8	18.6	19.7	16.3	19.5	22.2	18.6
	①	17.5	33.0	27.5	25.9	24.3	35.7	24.5	17.6	25.9	26.1	32.9	18.9	15.9	25.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돌아가시고 3년만에 대상을 지내고 탈상한다.	③	48.5	39.5	42.2	43.6	39.2	34.5	44.9	54.2	43.6	41.5	40.7	46.9	52.4	43.6
	②	29.5	30.2	25.5	29.2	31.1	28.7	30.3	26.8	29.2	30.3	28.9	31.1	22.	29.2
	①	22.0	30.2	32.4	27.2	29.7	36.8	24.8	19.0	27.2	28.2	30.5	22.0	15.9	27.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입관하기 전에 돌아가신분께 절을 하지 않는다.	③	37.0	28.9	27.5	32.0	40.5	28.7	31.8	31.7	32.0	31.9	32.5	31.7	30.2	32.0
	②	28.7	21.6	22.5	24.7	13.5	25.7	23.4	31.7	24.7	25.5	21.5	25.6	31.7	24.7
	①	34.3	49.5	50.0	43.4	45.9	45.6	44.9	36.6	43.4	42.6	45.9	42.7	38.1	43.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영정(돌아가신분의 사진)에는 검은색 리본을 두르지 않는다.	③	53.0	59.8	65.7	58.0	66.2	58.5	59.9	49.3	58.0	52.7	61.8	55.5	65.1	58.0
	②	27.2	20.3	19.6	23.0	16.2	24.9	22.3	26.8	23.0	27.1	21.5	22.0	19.0	23.0
	①	19.8	19.9	14.7	19.1	17.6	17.5	17.9	23.9	19.1	20.2	16.7	22.6	15.9	19.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삼오제는 장례 후 반드시 3일 되는 날이다.	③	6.3	7.2	4.9	6.5	1.4	5.3	7.3	9.2	6.5	7.4	5.3	7.9	4.8	6.5
	②	14.6	13.7	11.8	13.8	12.2	11.1	12.4	20.4	13.8	10.6	15.0	14.0	17.5	13.8
	①	79.1	79.0	83.3	79.8	86.5	83.6	80.3	70.4	79.8	81.9	79.7	78.0	77.8	79.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p<.05 **p<.01 ***p<.001, ③ 그렇게 한다 ② 경우에 따라 다르다 ① 그렇게 하지 않는다.
 — 각 cell의 빈도가 5를 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집단간의 차이가 있어도 해석하기 어렵다.

($p < .05$, 68.3%)에서 그 응답율이 높았다. 따라서 祭禮나 喪禮에는 傳統社會의 男性을 위주한 序次意識이 변용되어 가는 현상을 볼 수 있다.

屍身을 목욕시킬때 女喪이면 女子가 하나, 경우에 따라서 하거나(38.1%), 그렇게하지 않았으며(37.5%), 高卒($p < .05$, 43.1%)이며, 佛敎集團($p < .01$, 44.1%)인 경우에 잘 지켜지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돌아가신 분도 살아계신분 섬기듯 한다」는 禮에 크게 어긋나는 것으로 보여진다. 생존시는 男女의 구별을 지었음에도, 단지 운명했다고 해서, 어머니나 할머니등 女屍身을 아무에게나 목욕시키도록 하는 것은 오직 禮를 뒤로한 무분별한 本人中心의 意識의 表現이나 여겨진다.

상가집은 방문할때는 옥색치마저고리나 흰옷을 입는 儀禮는 그렇게 하거나(48.9%), 경우에 따라서 다르다(29.8%)고 했으며, 年齡이 낮을수록($p < .05$), 學歷이 높은 집단에서($p < .001$)그 儀禮의 實踐율이 높았다. 낮은 年齡層과 高卒歷層일수록 옥색치마 저고리나 흰옷을 입고 喪家를 방문하는 경향이 높은 것은 婚禮나 祭禮때와 마찬가지로 다른 내용보다는 衣服으로 드러나는 自身을 認定받기 원하는 自尊의 表現이라 할 수도 있다.

祖父母님이 돌아가셨을 때와 父母님이 돌아가셨을 때 喪服은 다르게 입는다는 儀式도 그렇게 지키거나(55.2%) 혹은 지키지 않는다(25.9%)는 비율이 높았으며, 39세 이하집단($p < .001$, 63.1%)과 國卒 이하 집단($p < .01$, 63.5%) 宗教가 없는 집단($p < .05$, 61.9%)에서 더 잘 지켜지고 있었다.

臨終後 3年만에 大祥을 지내고 脫喪하는 傳統儀禮를 지키고 있고(43.6%), 學歷이 높을수록($p < .05$) 그 응답율이 높았다.

人棺前에는 돌아가신 분께 절을 하지 않는다는 儀式은 지켜지지 않거나(43.4%), 혹은 지키는 경우도 32.0%로 많았으며, 年齡이 낮을수록 이를 지키려는 傾向을 보였다($p < .05$).

婚禮·祭禮·喪禮行禮의 全般의인 傾向을 보기 위하여, 각 응답을 점수화시켜 14점~42점의 點數를 갖도록 하여 F-test한 結果를 보면<表 IV-10>과 같다. 각 점수는 重位點(28점)을 상위하고 있으므로 家庭

<표 IV-10> 독립변인별 혼례·제례·상례의례 경향

가정의례행사	독립변인	N	M	S.D	F		
혼례	연령	39세이하	43	30.42	3.47	7.00***	
		40~49세	225	30.39	3.15		
		50세이상	393	31.35	3.28		
	학력	국졸이하	74	31.99	2.89		5.19**
		중졸	171	31.38	3.32		
		고졸	274	30.69	3.25		
대졸이상		142	30.46	3.32			
제례	연령	39세이하	43	31.07	4.73	4.40*	
		40~49세	225	30.81	4.51		
		50세이상	393	31.87	4.23		
	학력	국졸이하	74	33.34	3.54	10.04***	
		중졸	171	32.26	3.90		
		고졸	274	30.77	4.63		
		대졸이상	142	30.83	4.47		
	종교	불교	246	32.16	3.98	13.90***	
		기독교	164	29.60	5.08		
		천주교	63	31.73	4.64		
		없음	188	32.06	3.67		
	상례	연령	39세이하	43	30.21	4.92	16.08***
40~49세			225	28.93	4.45		
50세이상			393	31.05	4.45		
학력		국졸이하	74	30.84	4.38	6.11***	
		중졸	171	31.40	4.32		
		고졸	274	29.77	4.69		
		대졸이상	142	29.59	4.54		
종교		불교	246	30.80	4.60	4.03**	
		기독교	164	29.27	4.72		
		천주교	63	30.06	5.07		
		없음	188	30.53	4.15		
혼·상·제전·채		연령	30세이하	43	91.70	10.41	13.92***
	40~49세		225	90.12	9.58		
	50세이상		393	94.27	9.34		
	학력	국졸이하	74	96.16	8.37	10.71***	
		중졸	171	95.04	8.88		
		고졸	274	91.23	9.91		
		대졸이상	142	90.88	9.81		
	종교	불교	246	94.29	9.45	7.18***	
		기독교	164	89.90	10.23		
		천주교	63	92.38	10.70		
		없음	188	93.16	8.59		

* $p < .05$ ** $p < .01$ *** $p < .001$

<표 IV-11> 가정경영관 上·下수준에 따른 가정의례

가정경영관	가정의례 N	혼례	제례	상례	전체	
1. 효친상상의 화목 및 효우위주의 서차의식	上	397	31.64	32.26	31.20	95.11
	下	264	29.93	30.24	28.89	89.07
계 및 t	661	45.90***	35.63***	42.69***	67.96***	
2. 근검절약 및 화목의식	上	417	31.23	31.79	30.82	93.84
	下	244	30.50	30.89	29.34	90.73
계 및 t	661	7.83**	6.50*	16.48***	16.31***	
3. 책임 및 승경	上	401	31.14	31.59	30.38	93.11
	下	260	30.70	31.25	30.11	92.05
계 및 t	661	2.87	0.98	0.57	1.90	
4. 실리적 감각	上	537	31.06	31.61	30.33	93.00
	下	124	30.56	30.79	30.03	91.38
계 및 t	661	2.36	3.53	0.43	2.83	
5. 온고지신 및 효성과 청렴의식	上	350	31.41	32.15	30.65	94.21
	下	311	30.46	30.68	29.86	90.99
계 및 t	661	14.36***	18.95***	4.89*	18.62***	
6. 자아극기적 근후와 체면의식	上	425	31.25	31.75	30.58	93.58
	下	236	30.45	30.92	29.73	91.10
계 및 t	661	9.17**	5.52**	5.17*	10.08**	
7. 자기희생적 근후와 체면의식	上	482	31.09	31.59	30.48	93.16
	下	179	30.63	31.08	29.74	91.45
계 및 t	661	2.53	1.77	3.39	4.06*	
8. 현시적 체면의식	上	397	31.17	31.69	30.75	93.61
	下	264	30.66	31.11	29.56	91.32
계 및 t	661	3.91*	2.80*	10.97***	9.00**	
9. 가독위주 자녀관	上	249	31.45	32.28	31.18	94.91
	下	412	30.67	30.96	29.73	91.35
계 및 t	661	8.90***	14.46***	15.95***	21.62***	
10. 전통적 자녀교육관	上	418	31.24	31.61	30.77	93.62
	下	243	30.49	31.20	29.42	91.11
계 및 t	661	8.27***	1.33	13.52***	10.49**	
가정경영관 전체	上	327	31.86	30.08	30.35	29.06
	下	334	30.50	30.07	29.37	83.34
계 및 t	661	52.50***	46.07***	51.37***	83.34***	

*p<.05 **p<.01 ***p<0.01

儀禮를 傳統式으로 하려는 경향이었다. 그러나 그 점수가 높지는 않기 때문에 현대의 편이주의적 의례행사와 지식부족으로 보는 행례상의 혼란이 많은 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婚禮行禮는 50세이상집단(31.35점), 39세이하집단(30.42점), 40대집단(30.39점)의 順으로 傳統儀式을 따르려 했으며(p<.01), 學歷이 낮을수록 그 경향은 높았다(p<.01).

祭禮行禮도 年齡別로는 婚禮行禮와 같은 경향이었으며(p<.05), 國卒以上가 가장 傳統式대로 행하고 있으며(p<.001, 33.34점), 高卒集團은 그 반대로 가장 점수가 낮았다(p<.001, 30.77점), 그리고 佛敎集團이 他宗敎에 비하여 祭禮를 傳統式으로 하는 경향이 높았다(p<.001, 32.96 점).

喪禮行禮도 年齡別로는 婚禮나 祭禮와 동일하게 50세이상의 年齡層이 傳統式대로 하는 경향이 가장 높았다(p<.001, 31.05점) 學歷別로는 中卒集團이(p<.001, 31.40점), 宗敎別로는 佛敎集團이(p<.01, 30.80점) 가장 傳統式대로 喪禮를 行하는 경향이였다.

婚禮·祭禮·喪禮行禮의 全體 傾向을 보면, 50세 이상집단(p<.001, 94.27점)과, 學歷이 낮은 집단일수록(p<.001), 佛敎集團(p<.001, 94.29점)일때 가장 傳統儀式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家庭經營觀에서도 지적되었듯이 年齡이 높은 層일수록 學歷이 낮은 집단일수록 家庭儀禮 行事를 치름에 있어, 孝나 崇敬, 責任등 家庭에서 보고 들은 것이 많은 기준이 되어, 하나의 傳統行禮에 대한 知識으로써 以後의 行禮行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진다.

4. 都市主婦의 家庭經營觀과 家庭儀禮

1) 各 家庭經營觀을 上·下集團別로 본 家庭儀禮는 <表 IV-11>과 같다.

各 要因別 家庭經營觀이 傳統志向의인 上集團일수록 昏禮와 祭禮·喪禮行禮도 傳統儀式을 따르는 傾向이였다.

孝親崇拜의 和睦 및 孝悌愛爲主의 傳統的 序次意識이 上 집단일수록 各 行禮도 傳統式을 따르려는 경

〈표 IV-12〉 가정경영관과 가정의례행사와의 상관관계

	혼례	제례	상례	혼·상·제 전체	가정 경영관
혼례	1.0000				
제례	*** 0.3036	1.0000			
상례	*** 0.4132	*** 0.5373	1.0000		
혼·상·제 전체	*** 0.6717	*** 0.8102	*** 0.8568	1.0000	
가정 경영관	*** 0.3014	*** 0.2818	*** 0.2840	*** 0.3641	1.0000

***p<.001

(N=661)

향인데, 특히 祭禮行禮의 경우, 다른 行禮에서 보다 그 경향이 높았다. 그리고 要因 중에서 上·下집단별 차이가 가장 큰 요인은 이 1要因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勤儉節約 및 和睦意識, 溫故而知新 및 孝誠과 孝廉意識 自我克己의 謹厚와 體面意識, 家督爲主 子女觀, 傳統的 子女觀도 上·下집단별로 婚禮·祭禮·喪禮行禮와 差異가 있었다. 그러나 自己顯示의 體面意識은 上·下집단별로 婚禮와 喪禮行禮에서 差異를 보였다. 행례의 세부문항 분석에서 지적했듯이 婚禮나 喪禮는 對外的인 行事로서 體面維持를 위한 차질 걸치레가 많아 질수 있는 行禮인 반면, 祭禮는 家族中心의 行事로서 體面보다는 誠意와 崇敬意識을 갖고 行하야 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나타나 결과라 사료된다.

家庭經營觀과 家庭儀禮가 어떤 關係가 있는지를 보기 위하여 相關關係를 산출한 結果는 〈表 IV-12〉과 같다.

全體家庭經營觀과 家庭儀禮(婚禮 $r=0.3014$, $p<.001$ /儀禮 $r=0.2818$, $p<.001$ /喪禮 $r=0.3641$, $p<.001$)는 全般的으로 낮은 相關을 보였다.

家庭儀禮中 婚禮는 祭禮($r=0.3036$, $p<.001$) 및 喪禮($r=0.4132$, $p<.001$)와 正的相關關係를 보였고, 全體 家庭儀禮와는 $r=0.6717$ ($p<.001$)로 높은 正的相關關係를 나타냈으며, 祭禮도 喪禮($r=0.5373$, $p<.001$) 및 전체 婚·祭·喪과 높은 正的相關關係를 나타냈다($r=0.8568$, $p<.001$).

〈표 IV-13〉 독립변인이 가정경영관과 가정의례에 미치는 영향력 회귀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R ²	RSQ Change	β	F	
가정경영관	연령	0.017	0.002	0.041	3.912*	
	학력	0.007	0.007	-0.099	4.627**	
가정 의례 행사	혼례	연령	0.029	0.007	0.088	9.707**
		학력	0.022	0.022	-0.121	14.681***
	제례	연령	0.012	0.012	0.088	3.197
		학력	0.038	0.026	-0.184	17.142***
	상례	연령	0.023	0.023	0.099	15.180***
		학력	0.041	0.009	-0.074	9.367**

*p<.05 **p<.01 ***p<.001

2) 獨立變인이 家庭經營觀과 家庭儀禮에 미치는 影響

家庭經營觀에는 年齡, 學歷이 有意한 影響을 미치는 變因으로 年齡이 높을수록($p<.05$), 學歷이 낮을수록($p<.01$) 傳統志向의인 家庭經營을 나타냈다.

그리고 家庭儀禮中 婚禮와 喪禮도 年齡, 學歷의 有意한 影響을 받았으나, 그 影響의 強度는 낮았다. 祭禮에도 學歷이 影響을 미치는 變인이었다.

즉 婚禮 및 喪禮는 年齡이 높을수록 學歷이 낮을수록 傳統意識을 行하고 있으며, 祭禮는 學歷이 낮을수록 傳統意識을 따르는 傾向이었다.

V. 結論 및 提言

以上的 研究 結果를 綜合하면, 都市主婦의 家庭經營觀은 全般的으로 傳統志向의인 傾向이었으며, 年齡이 많을수록, 學歷이 낮을수록 그 傾向이 높았다. 특히 家庭經營觀에는 傳統的인 孝와 儉約體面, 自己儀性, 子女教育에 대한 意識이 作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家庭儀禮 節次 基準은 婚禮의 경우, 양력을 기준으로, 여러사람이 모일 수 있는 時間에, 예식장이나 공공장소에서, 家族과 집안의 의논하에 進行하고 있으며, 음식대접은 집밖의 음식점에서 하고, 예단이나

답례품은 婚姻 前에 형편에 맞게 보내며, 옷은 새로 만들어 입고 行禮를 치르는 傾向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祭禮와 喪禮는 주로 음력을 기준으로, 여러사람이 모일 수 있는 시간에 지내며, 祭禮는 주로 정해진 일정한 집에서, 喪禮는 당시 본인(死者)이 살던 집에서 행한다고 하였다. 행사의 진행은 婚禮와 같이 家族과 집안에 의논하여 결정한대로 하였으나 飲食대접은 주로 집에서의 하여 婚禮의 飲食대접과는 서로 다른 결과를 보였다. 계수전(품)이나 부의금을 보낼 때는 주로 당일에, 형편에 맞게 보내며, 祭服이나 喪禮服은 입던옷을 깨끗이 입도록 하여 婚禮와는 달랐다.

그리고 婚禮時 예단의 양은 본인의 能力範圍에서 하고, 약혼식은 하지 않되 四柱만 보내며, 幽에는 靑紅色옷감과 婚書紙만 넣고, 패물은 넣지 않는다. 新婚族行後 新婦집으로 먼저가는 것들에 대한 冠禮는 踏襲되지 않고, 대부분 경우에 따라 다르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祭禮나 喪禮는 형편에 따르기 보다는 從來의 傳統儀式으로 혹은 그와는 대조적인 일정한 原則 없이 恣意的이고 便宜爲主의 形式으로 치르는 傾向을 보여 傳統儀禮에 대한 熟知부족에서 行禮上 混沌을 야기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婚禮를 自己 顯示的이고 自己 誇示的인 體面儀式과 實利의 行事로 되고 있으나 祭禮나 喪禮는 責任과 崇敬儀式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行事라고 본다. 그러나 일부 儀式에서는 崇敬보다는 實利的이고 自己本爲的인 儀式이 강하게 作用하기도 한다. 따라서 傳統儀禮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實行이 必要하다고 본다.

家庭經營觀과 家庭儀禮와의 關係는 家庭經營觀이 傳統志向的인 「上」集團일수록 各 儀禮도 傳統儀式으로 하는 傾向이며, 學歷이 낮을수록, 年齡 많을수록 傳統儀式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高學歷 主婦에 대한 傳統儀禮 教育의 강화와 40대이하 年齡層 主婦들에게 傳統儀禮의 올바른 뜻과 내용, 節次를 익힐수 있는 各種教育이 行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李美笑(1989, p. 104)도 지적한 바와 같이 平生 教育機關이나 生活館, 社會教育機關 등을 통해 이에 대한 가르침을 반복적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誠行하되, 本 研究結果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났듯이

主婦의 年齡層을 구분하여 각기 알맞는 program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高學歷 主婦들을 위한 傳統儀禮文化의 뿌리와 淵源을 명확히 하는 教育 program도 강구되어야 한다.

위와같은 研究를 土臺로 後續研究에서는, 첫째, 都市主婦뿐만아니라 傳統文化가 뿌리깊게 保存되어 있는 傳統家門이나 中心都市 主婦나, 農村 主婦들을 對象으로 家庭經營觀을 파악하여, 우리나라 主婦들의 傳統意識에 바탕을 둔 家庭經營觀의 受容과 履行程度를 파악하므로써 韓國社會에 맞는 家庭經營觀 測定 尺度를 좀더 수정-보완해야 할 것이다. 둘째, 年齡이나 學歷別 婚禮·祭禮·喪禮에 미치는 影響은 有意한 差異를 보였으나 그 影響力은 미약했으므로 그밖의 환경 및 관련변인을 고려하여 計劃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 「家禮源流」
- 「家禮輯覽」
- 「擊蒙要訣」
- 「經國大典」
- 「戒女書」
- 「규동요람」
- 「閨閣叢書」
- 琴章泰, “韓國古代的 信仰과 祭儀,” 「同德女子大學論文集」, 서울: 同德女子大學, 1978.
- 金春東, 「韓國文化史大系 IV」, 서울: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1972
- 「內訓」 정야완 역주, 서울: 學園社, 1988
- 「論語」
- 「孟子」
- 문숙재, “도시주부의 가정관리행동에 관한 의식과 실태 조사,” 이대논총 37집, 1980
- 문숙재, “家庭管理行動을 위한 人類學的 接近,” 대한가정학회지 제19권 4호, 1981
- 朴琇貞, “都市主婦의 祭禮行禮意識과 祭禮行動에 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1989
- 朴順天, “都市主婦의 家庭生活觀과 祭祀行禮意識에 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成信女子大學校 大學院, 1986
- 朴惠仁, “韓國의 傳統婚禮研究,” 서울: 高麗大學校,

- 民族文化研究所, 1988
- 成炳遠, “喪葬禮에 있어서의 女性的 役割,” 「女性問題研究」 제11집, 효성여자대학교, 한국여성문제연구소, 1982
- 「宋子大全」
- 「禮記」
- 「禮儀類輯」
- 「備齊叢活」
- 劉永珠, “韓國家族에 있어서의 結婚研究,” 「인하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논문집」 제2집 1976
- 「疑禮問解」
- 李家源 「新舊冠婚喪祭」 서울 : 三榮文化社, 1980
- 李光圭, 「韓國人の 一生」 韓國民俗學叢書, 서울 : 螢雪出版社, 1985
- 李吉杓, “우리나라 婚禮에 나타난, 色配合의 研究,” 「誠信研究論文集」 第13輯 서울 : 誠信女子大學校出版部, 1980
- 李吉杓, “家禮를 通해본 韓國人の 意識構造 研究,” 博士學位論文, 高麗大學校 大學院, 1982
- 李吉杓, 朱英愛, “都市主婦의 家庭經營觀에 關한 研究,” 誠信女子大學校, 生活文化研究所 論文集 3, 1989, 2
- 李能和, 「朝鮮女俗考」, 서울 : 大洋書籍, 1975
- 李德懋, 「士小節」
- 李晔光, 「芝峯類說」 서울 : 을유문화사, 1975 梓
- 李暎美, “朝鮮朝 女性的 家庭教育에 對한 現代的 再照明,” 博士學位論文,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1989
- 李潤樹, “韓國人の 價値觀의 模型變因에 關한 研究,” 아카데미 論叢, 1975
- 李仁喜 “家事勞動의 節減을 위한 家庭器幾管理의 現況 分析,” 동덕여대 논총4집, 1974
- 이정우, “韓國都市女性的 價値觀 研究,” 「亞細亞女性研究」 第18集, 淑大亞細亞女性問題 研究所, 1979
- 李鍾恒, “우리民族의 喪禮와 祭禮에 關한 研究,” 「延世論叢」 서울 : 延世大學校, 1963
- 任玉宰, “祭祀에 對한 婦女子의 意識構造 調查研究,” 淑大, 아세아 여성문제연구소 제20집, 1987
- 장명옥, “우리나라 主婦의 家庭管理行動의 實態調查와 그의 效率의인 管理方法에 對한 研究,”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논문집 제1권 1976
- 張哲秀, 「通過儀禮」 서울편,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 1979
- 「朱子家禮」
- 崔明仁, “世界女性教育動向과 韓國女性教育,” 「世界속의 韓國女性教育」 여성교육자료 III,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원 1979
- 한남제, “韓國都市住民의 結婚觀,” 효성여대, 한국여성문제연구소 제3집, 1973
- 「孝經」
- 「欽定儀禮義疏」
- Clave W. Grave, Level of Existance: An Open System Theory of Values, *Journal of Humanistic Psychology*, Vol. 10, No. 2. (Repinted by Permission)
- E.M. Durall & P. Hill, *When you marry* (association press. N.Y., 1953)
- Paolucci, B. Olive S.H., and Nancy, A., *Family Decision Making: An Ecosystem Approach*, N.Y: John Wiley and Sons, Inc., 1977